

질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에 대하여



문 옥 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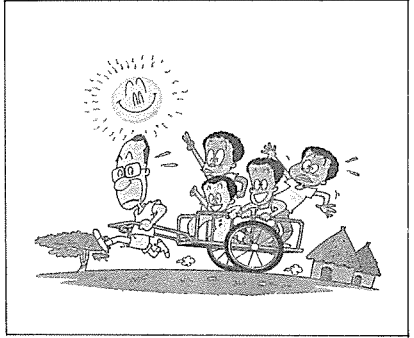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의·식·주의 문제 다음으로 가장 큰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질병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로 그 발생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돌발적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해당 사회의 여러가지 상황과 어우러지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질병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관계나 사회생활의 모든 관습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질병이 사회상황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질병은 사회의 제반상황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염병이다.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전염병이나 중세 유럽을 쑥밭으로 만들었던 흑사병, 그리고 그 흑사병의 현대판인 AIDS 등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병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여름철에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위험

일반적으로
질병은
해당 사회의
여러가지 상황과
어우러지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질병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에서 인류가 보다 안전하게 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Omran의 역학적 변천설(Theory of Epidemiologic transition)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변천을 질병과 연관하여 볼 때 역질과 기근 시대, 범유행 감축시대, 퇴행성 인조질환 시대의 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전염병의 유행이 감소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인데(AIDS는 여기서 예외이다), 이러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경우도 우리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불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만성질환의 만연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고 나온 것이 에어로빅 같은 운동이고, 또 다이어트가 대 성행을 하고 있다. 각종 암의 공포에 눈뜨게 되자 사람들은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너도나도 종합건강진단을 한다. 각종 건강잡지들은 엉뚱한 정보를 전달하기 일췌이지만 사람들은 시험삼아서라도 그런 것을 믿고 한번 시행해 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생활의 향상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질병양상의 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쏠려야 하는가를 결정해 준 것이다.

질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생활의 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의 악화가 사회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생산력을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나 하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질병으로 인한 인력의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기업체에 있어서 근로자가 병으로 휴직하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상당한 부담이 되며, 또한 근로자의 치료 비용을 기업체가 질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므로, 큰 기업의 경우는



기업과 관련된 병원을 자체 소유하거나 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기업이윤의 외부 누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위험에서
인류가
보다 안전하게
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질병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옛날의 왕은 홍수나 가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질병의 큰 유행이 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질병의 만연에 대한 책임이 정부로 귀속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질병이 수많은 사람을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면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 행정부나 해당 정권에 국민의 원망이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인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된다. 일례로 산업 사회의 여러 질병이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사회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폐암의 증가가 흡연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자가 준 범죄자 취급을 받게까지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질병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젊은 층의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금지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직장생활의 풍속도가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한 예가 되겠다.

문화적 측면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시대의 사회에서는 질병을 개인의 운수로 돌리거나 하늘의 저주나 심판으로, 또는 나쁜 귀신의 장난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무속 신앙이 융성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이 무속 신앙과 관련한 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질병에 대한

퇴행성
 인조질환시대에
 범람하게 될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전파 방지,
 만성병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식이 변화하면서 질병과 관련한 문화적 양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질병발생 양상자체의 변화로 인하여서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활문화가 변하게 된다.

흔히들 ① 인체생물학적 요인 ② 환경적 요인 ③ 보건의료체계 요인 및 ④ 생활양식 요인을 건강의 4대 결정요인으로 꼽는데, 이 중에서 ①과 ②와 ③은 주로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고, ④는 주로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앞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④의 생활양식 요인을 개인의 행위와 태도에 맡겨두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를 유도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각종 운동이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미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자면 개인이나 집단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시간과 시설 및 기구를 국가나 지역사회가 마련해 주든지, 의료보험의 재정공동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운동 프로그램과 내용을 개발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더라도 질병은 인류와 항상 공존하면서 상호 가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질병관리라는 개념의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의 질병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추구되어야 하겠지만, 퇴행성 인조질환시대에 범람하게 될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전파 방지, 만성병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병이 인류의 사회사(社會史)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듯이, 인류의 체계적인 사회적 대응이 질병의 자연사(自然史)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㉔

